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신은정¹, 박영숙^{2*}

¹거제대학교 간호학과, ²계명대학교 간호대학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Eun Jung Shin¹ and Yeong Sook Park^{2*}

¹Department of Nursing, Koje college

²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D시 소재 D의료원에 실습 경험이 있으며 한 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4년제 간호대학의 3학년 학생, 3년제 간호대학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다.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4.76(0.69)점, 자아탄력성 2.80(0.33)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03(0.52)점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감성지능은 성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 그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 실습기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시뮬레이션 실습, 주 실습지도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r=.527,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감성지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131, p<.001$),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134, p<.001$)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588 nursing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mean scores for emotional intelligence 4.76(0.69), ego resilience 2.80(0.33),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3.03(0.52) were above average. Emotional Intellig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Ego resili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dura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imulation practice, and main tutor in clinical practic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to less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Ego 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을 실제 간호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1]. 특히 임상실습은 이론 교육과 더불어 간호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2] 이러

이 논문은 제1저자 신은정의 석사학위논문 의 축약본임

*Corresponding Author : Yeong Sook Park(Keimyung Univ.)

Tel: +82-53-580-3921 email: ysp615@kmu.ac.kr

Received May 20, 2013

Revised (1st October 7, 2013, 2nd October 16,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한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3].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이라는 낯선 환경, 실습 중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과도한 과제, 역할 갈등 및 지식부족,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한계점, 예상치 못하는 위기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한다[5]. 더 나아가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6]. 따라서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가운데 개인의 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7,8]. 선행연구를 보면 자기효능감[5], 자아존중감[4], 셀프리더십[8], 감성지능[9], 자아탄력성[10,11] 등의 개인의 내적인 특성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수로 제시되었다.

그 중 감성지능은 긍정적인 감정성향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다[12].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대처행동을 나타낸다[13]. 미국과 영국 등 국외에서는 간호사 및 건강관리자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내적변수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감성지능이다[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스트레스[9], 감성지능과 간호수행[14]의 관계를 분석하여 감성지능의 잠재력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나 국내에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1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개인의 내적인 특성인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함으로써 유연하게 반응하여[16], 자신이 처한 환경적 요구에 대해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하는 역동적인 능력이다[17].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를 활용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며,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고[18],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간호학 문헌들에서도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외적 환경상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는 건강관리자의 필수 교육 항목 중 하나가 자아탄력성이며[10] 소아종양 간호사들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라고 보고하였다[19]. 이렇듯 주목을 받고 있는 내적변수인 자아탄력성이 국내에서는 병원 종사자의 자아탄력성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20]만 있을 뿐,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은 공통적으로 감정을 인식하고, 자아통제를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1]. 따라서 두 가지 특성을 통합 개발하여 활용하면,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 관련성을 규명하여 효율적인 간호교육의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은 긍정적 감정성향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자신의 감성을 활용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12].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 (2002)[12]가 개발한 감성지능 척도(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정현우(2007)[22]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1.3.2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

자아탄력성은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나타내지 않으며 성공적인 적응을 도모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다

[23].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 (1996)[17]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24]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1.3.3 임상실습 스트레스(Stress in clinical practice)

임상실습과 관련되어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감정, 사고과정,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에 위협적인 영향을 주는 긴장상태로 개인자신의 욕구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Beck과 Srivastva (1991)[25]가 개발하였고 김순례와 이종은(2005)[4]이 수정·보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 소재 D의료원에 실습 경험이 있는 4년제 2개교, 3년제 7개교 학생 전수를 표집하였다. 실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4년제 간호학과와 3학년 학생 124명, 3년제 간호학과와 2학년 학생 499명으로 총 62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95.8%로 불완전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한 총 5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감성지능

Wong과 Law (2002)[12]의 감성지능 척도(WLEIS)를 정현우(2007)[22]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WLEIS는 총 16개 문항이며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 조절 및 감성활용의 4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각각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7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 이었다.

2.2.2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 (1996)[17]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24]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로 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 (1996)[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76이었고, 유성경과 심혜원(2002)[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7이었다.

2.2.3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과 Srivastva (1991)[25]가 개발하였고 김순례와 이종은(2005)[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부요인으로는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등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김순례와 이종은(2005)[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이었다.

2.3 자료수집절차

최종 구성된 설문지는 4년제 간호대학 3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설문지 내용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문항을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동산의료원 의료연구윤리심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IRB No. 11-178).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8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각 대학의 학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t-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588명으로, 여자가 530명(90.1%), 남자가 58명(9.9%)이었다. 실습기간은 3개월부터 15개월까지로 평균 7.53개월의 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평균 3.5이상 4.0미만이 281명(46.8%)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282명(48.0%)이고, ‘불만족한다’는 25명(4.2%)이었다.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26명(21.4%)이고, ‘불만족한다’는 105명(17.9%)이었다.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가 508명(86.4%)이었으며, 실습 병원 수는 2개 이상 5개 미만이 375명(63.8%)으로 가장 많았다. 실습 시 주 실습지도자는 과목별 지도교수 및 조교가 286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3.2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체 평균은 4.76 (0.69)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감성인식은 5.14 (0.91)점, 타인감성인식은 5.03 (0.88)점, 감성활용은 4.66 (1.01)점, 감성조절은 4.21 (1.10)점 순이다. 자기감성인식과 타인감성인식은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은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체 평균은 2.80(0.33)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순서로 대인관계 3.03 (0.37)점, 호기심 2.78 (0.54)점, 감정통제 2.77 (0.53)점, 활력 2.81 (0.51)점, 낙관성 2.59 (0.55)점 순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체 평균은 3.03 (0.52)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스트레스 정도는 5개 하위 영역 중 ‘실습업무 부담’이 3.56 (0.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습교육환경’ 3.54 (0.67)점, ‘바라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3.13 (0.74)점, ‘환자와의 갈등’ 2.58 (0.72)점, ‘대인관계 갈등’ 2.35 (0.72)점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8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58	9.9
	Female	530	90.1
Age	≤21	339	57.7
	≥22	249	42.3
	<6month	62	10.5
Period of clinical practice	6month~11month	418	71.1
	≥1year	108	18.4
M±SD		7.53 ± 2.59 month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ied	282	48.0
	Moderate	281	47.8
	Dissatisfied	25	4.2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26	21.4
	Moderate	357	60.7
	Dissatisfied	105	17.9
Experience of simulation practice	Yes	80	13.6
	No	508	86.4
Main tutor in clinical practice	Preceptor nurse	103	17.5
	Head nurse	140	23.8
	Nurse	59	10.0
	Professor, Teaching assistance	286	48.7

[Table 2]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N=588)	
Variables	Mean (SD)
Emotional intelligence	4.76 (0.69)
Self emotional appraisal	5.14 (0.91)
Others emotional appraisal	5.03 (0.88)
Use of emotion	4.66 (1.01)
Regulation of Emotion	4.21 (1.10)
Ego resilience	2.80 (0.33)
Interpersonal relationship	3.03 (0.37)
Curiosity	2.78 (0.54)
Emotional control	2.77 (0.53)
Activity	2.81 (0.51)
Optimism	2.59 (0.55)
Stress in clinical practice	3.03 (0.52)
Educational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3.54 (0.67)
Unsuitable role model	3.13 (0.74)
Clinical working loading	3.56 (0.64)
Confli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2.35 (0.72)
Conflict with patients	2.58 (0.72)

3.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는 Table 3과 같으며, 성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 점수의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93, p=.003$). 전공만족도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는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만족하는 군이 다른 두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통인 군은 불만족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3.02, p<.001$). 실습만족도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도 만족하는 군이 다른 두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통인 군은 불만족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10.86, p<.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able 3과 같으며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에 따라 자아

탄력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만족하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F=3.23, p=.040$), 실습만족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하는 군보다 높았다($F=5.91, p=.00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Table 3과 같으며 성별, 실습기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시뮬레이션 실습경험, 주 실습지도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t=-3.66, p<.001$). 실습 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인 군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군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F=6.25, p=.002$),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불만족하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다($F=10.97, p<.001$). 실습만족도에 따라서는 불만족하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인 군은 만족하는 군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F=34.98, p<.001$). 시뮬레이션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시뮬레이션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t=2.71, p=.007$). 주 실습지도자가 과목별 지도교수 및 조교의 경우 프리셉터 간호사인 경우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3.55, p=.004$).

3.4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

[Table 3] Differ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58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Mean (SD)	F/t (p)	Mean (SD)	F/t (p)	Mean (SD)	F/t (p)
Gender	Male	5.01 (0.72)	2.93	2.87 (0.30)	1.69	2.80 (0.60)	-3.66
	Female	4.73 (0.69)	(.003)	2.79 (0.33)	(.091)	3.06 (0.50)	(<.001)
Age	≤21	4.73 (0.70)	-1.14	2.80 (0.33)	-0.07	3.03 (0.55)	-0.27
	≥22	4.80 (0.69)	(.251)	2.80 (0.33)	(.937)	3.04 (0.47)	(.780)
Period of clinical practice	<6month ^a	4.74 (0.77)		2.75 (0.31)		3.07 (0.47)	6.25
	6month ~ 11month ^b	4.78 (0.69)	0.48	2.80 (0.34)	0.83	2.99 (0.53)	(.002)
	≥1year ^c	4.71 (0.68)	(.616)	2.81 (0.31)	(.436)	3.18 (0.45)	
<i>Scheffé</i>						c>b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ied ^a	4.95 (0.65)		2.83 (0.31)		2.98 (0.51)	
	Moderate ^b	4.61 (0.68)	23.02	2.76 (0.34)	3.23	3.05 (0.51)	10.97
	Dissatisfied ^c	4.32 (0.71)	(<.001)	2.82 (0.39)	(.040)	3.47 (0.51)	(<.001)
<i>Scheffé</i>		a>b>c		a>b,c		c>a,b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a	5.00 (0.63)		2.87 (0.32)	5.91	2.85 (0.52)	34.98
	Moderate ^b	4.72 (0.69)	10.86	2.79 (0.33)	(.003)	3.00 (0.48)	(<.001)
	Dissatisfied ^c	4.61 (0.71)	(<.001)	2.72 (0.33)		3.37 (0.48)	
<i>Scheffé</i>		a>b>c		a>c		c>b>a	
Experience of simulation practice	Yes	4.76 (0.77)	-0.02	2.79 (0.30)	-0.17	3.18 (0.50)	2.71
	No	4.76 (0.68)	(.983)	2.80 (0.33)	(.858)	3.01 (0.51)	(.007)
Main tutor in clinical practice	Preceptor nurse ^a	4.77 (0.64)		2.80 (0.32)		2.98 (0.39)	
	Head nurse ^b	4.67 (0.74)		2.80 (0.35)		3.03 (0.51)	
	Nurse ^c	4.74 (0.75)	1.31	2.74 (0.32)	0.82	3.20 (0.50)	3.55
	Professor, Teaching assistance ^d	4.80 (0.68)	(.257)	2.99 (0.74)	(.531)	3.94 (0.16)	(.004)
<i>Scheffé</i>						c>a	

* p<.05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N=588)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Ego resilience	.527*								
Stress in clinical practice	-.131*				-.134*				
	Self emotional appraisal	Others emotional appraisal	Use of emotion	Regulation of Emo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uriosity	Emotional control	Activity	Optimism
Educational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057	-.074	.036	.092*	.079	-.026	.065	.096*	.150
Unsuitable role model	.045	-.062	-.015	.032	.101*	-.056	-.040	.063	.045
Clinical working loading	-.087*	-.157*	-.085*	-.008	.032	-.041	-.056	-.023	.016
Confli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156*	.007	.011	-.032	.107*	-.022	.051	.046	.004
Conflict with patients	-.166*	.005	.062	.090*	.166*	.032	.071	.134*	-.094*

* $p < .05$

스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r=.527,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131, p<.001$),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134, p<.001$)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별 점수로는 자기감성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마지막으로 감성조절이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6]와 영역별 순위가 일치하였다. 감성활용이나 감성조절점수가 비교적 낮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감정을 조직하고 활용하거나,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사료되어 감성활용과 감성조절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성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와 실습 만족도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는 전공만족도와 실습 만족도 모두에서 만족하는 군이 보통인 군과 불만족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에 따라 감성지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후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 그리고 감성지능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대인관계가 가장 높았고 활력, 호기심, 감정통제, 낙관성 순이었다. 하위영역 중에서 감정통제, 낙관성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완주(2009)[27]의 연구에서도 감정통제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감정통제는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며, 낙관성은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요인으로[17] 균형 있는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서는 감정통제와 낙관성을 다른 요인들과 함께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군이 보통인 군과 불만족하는 군보다 높았고, 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전공과 실습에 만족하는 간호대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상황적 요구에 따라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실습업무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습교육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환자와의 갈등, 대인관계 갈등 순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순례와 이종은(2005)[4]의 연구에서도 실습업무 부담, 실습교육환경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업무의 실태를 파악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임상실습 교육에 적합한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 실습기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시뮬레이션 경험, 주 실습지도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박복순(2009)[7], 황성자(2006)[5], 박민아(200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특성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습기간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실습기간이 1년 이상인 군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군보다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임상실습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학생은 실습경험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보고한 양남영과 문선영(201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실습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더 높았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지식을 증가시키고 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나[28], 일부 학생들은 부담스럽고 불안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29].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대상자 수의 차이가 커서 비교가 어렵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으므로 추후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에서는, 불만족하는 군에서 실습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실습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8]의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볼 수 있다.

실습지도자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주 실습지도자가 프리셉터 간호사인 경우에 실습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셉터가 바람직한 역할 모델의 기능을 수행하며,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현실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임상실습교육에서 프리셉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성을 보면, 먼저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27, p<.001$)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주연(2007)[21]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46, p<.01$)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과 감정통제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연구결과[18]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함께 개발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감성지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약하지만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31, p<.001$)를 나타냈다. 영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or 등(2011)[9]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r=-.40, p<.001$)를 나타내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경희와 송정수(2010)[15]의 연구결과($r=-.137, p=.026$)와 치의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u와 Croucher (2003)[30]의 연구결과($r=-.289, p<.001$)에서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감성지능과 스트레스가 대체로 상관관계가 약하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특히 ‘자기감성인식’과 ‘타인감성 인식’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다소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감성지능 중 감성 인식을 주안점으로 개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34, p<.001$)가 있었다.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애숙(2011)[20]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직무 스트레스와 약하지만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87, p<.01$)를 나타냈다. 소아중양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문헌고찰 연구에서 역시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전략임을 나타냈고[19] 영국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체계적 고찰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 탄력성의 개발이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라고 보고하였다[11].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자아탄력성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대인관계’와 ‘활력성’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다소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

내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자아탄력성 중 대인관계와 활력성을 중심으로 개발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내적특성 개발 전략으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함양하는 구조화 되고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 교과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들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제,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라 감성지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라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학제, 실습기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주 실습지도자에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과정의 도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에 도입한다면 궁극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일부 간호대학생으로 제한되었던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추후 연구 그리고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N. S. Ha., M.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1(1), pp. 1-9, 2005.

[2] H.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6(1), pp. 64-77, 2002.

[3] M. A.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9.

[4]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pp. 98-106, 2005.

[5] S. J.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pp. 205-213, 2006.

[6]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pp. 14-23, 2010.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0.16.1.014>

[7] B. S. Park., "Stres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by sex role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9

[8]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2), pp. 216-225,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2.216>

[9]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J .Roberts.,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1(8), pp. 855-860, 2011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0.12.023>

[10] M. McAllister., J. McKinnon., "The importance of teaching and learning resilience in the health disciplin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Today*, 29, pp. 371-379, 2009.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8.10.011>

[11] J. Thomas., B. A. Jack., A. M. Jinks, "Resilience to

- ca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synthesis of the qualitative literature concerning the experiences of student nurses in adult hospital settings in the UK", *Nurse Education today*, 32(6), pp. 657-664, 2012.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1.09.005>
- [12]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pp. 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13] P. N. Lopes., M. A. Brackett., J. B. Nezleck., A. Schutz., I. Sellin.,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30, pp. 1018-1034, 2004.
DOI: <http://dx.doi.org/10.1177/0146167204264762>
- [14] A. M. Beauvais., N. Brady., E. R. O'shea., M. T. Q. Griff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1, pp. 396-401, 2011.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0.07.013>
- [15] K. H. Lee., J. S. Song.,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s :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6(1), pp. 17-25, 2010.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0.16.1.17>
- [16] J. H. Block., H.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pp. 39-101, 1980.
- [17]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 349-3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18] M. M. Tugade., B. L. Fredrickson.,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pp. 320-333, 2004.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6.2.320>
- [19] M. Zander., A. Hutton., L. King., "Coping and resilience factors in pediatric oncology nurse", *Journal of Pediatric Oncology Nursing*, 27(2), pp. 94-108, 2011.
DOI: <http://dx.doi.org/10.1177/1043454209350154>
- [20] A. S. kim., "The Relationship of Hospital Employees' Jobstress,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1.
- [21] J. Y. Kim., "The Infl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7.
- [22] H. W.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thesis, 2007.
- [23] H. Block., J. H. Block.,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pp. 315-327, 2006.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61.4.315>
- [24] S. K.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pp. 189-206, 2002.
- [25] D. L. Beck., R. Srivast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pp. 127-133, 1991.
- [26] J. H. Choi., "Relationship between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epartment of Nursing Ajou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0.
- [27] W. J. Park.,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pp. 240-250, 2009.
- [28] D. Ilic., "Assessing competency in evidence based practic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current tools in practice", *BMC Medical Education*, 9, pp. 53, 2009.
DOI: <http://dx.doi.org/10.1186/1472-6920-9-53>
- [29] C. S. McCaughey., M. K. Traynor., "The role of simulation in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30(8), pp. 827-832, 2010.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0.03.005>
- [30] A. Pau., R. Crouch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ceived stress in dental undergraduate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67, pp. 1023-1028, 2003.

신 은 정(Eun Jung Shin)

[정회원]



- 2012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재학)
- 2013년 7월 ~ 현재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 공학,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박 영 숙(Yeong Sook Park)

[정회원]



- 1990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1999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2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 공학, 보건학, 간호학